

나도 모르던 내가 되는 여행

남쪽빛 감성여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남 쪽 빛 감 성 여 행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둘만의 로맨스를 위해서, 휴식과
쉼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려고 긴 여정을 계획하고, 목적에 꼭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비행기나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몰랐던 멋진 곳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굳이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멋진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기에 미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
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해 보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개 권역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 여행코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고품격 여행코스를 알리는 여행책자이자 가이드북입니다.



blog.naver.com/ktourbes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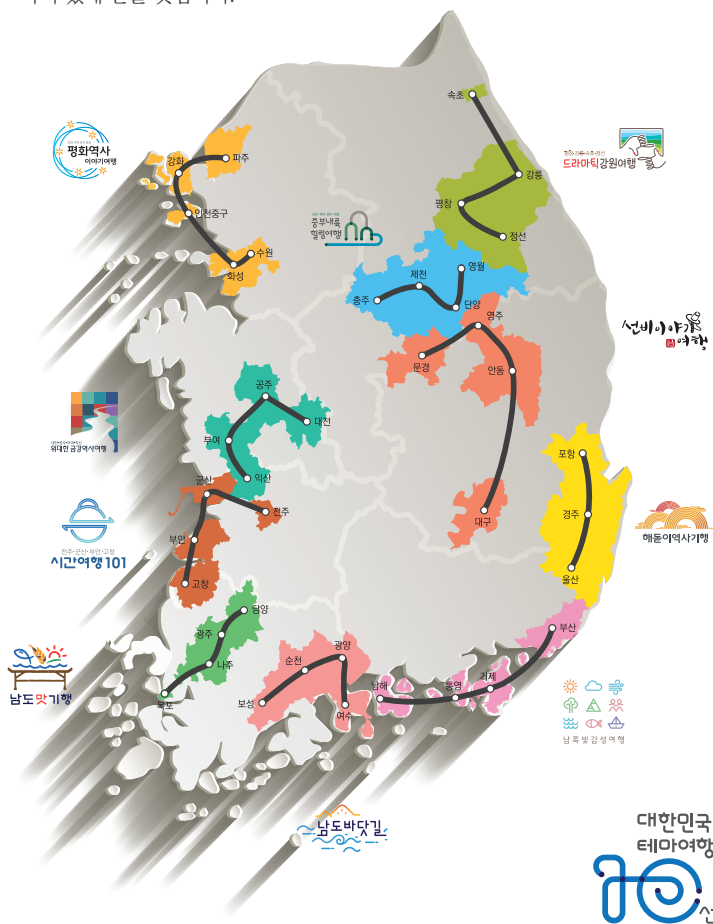


[instagram.com/ktourbest10](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ktourbest10.visitkorea.or.kr

대한민국의 전국을 아우르는 총 39개의 도시, 10개의 색다른 테마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 꼭 들려야 할 곳을 혹시나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숨겨진 명소까지 남김없이 담았으며,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의 초대

04. 테마여행 10선 사업 소개

그곳의 분위기

10. 권역 테마 소개

그곳의 이야기

12. 부산

18. 거제

24. 통영

34. 남해

그곳의 기억

14-17. 부산

20-23. 거제

26-31. 통영

36-39. 남해

41. 보조코스

그곳의 재미

42. 축제

44. 쇼핑(음식, 특산물)

그곳에 머무르기

46. 숙박

48. 교통

바다를 보면
기억 저편에서 밀려오는 사람이 있다



통영 한려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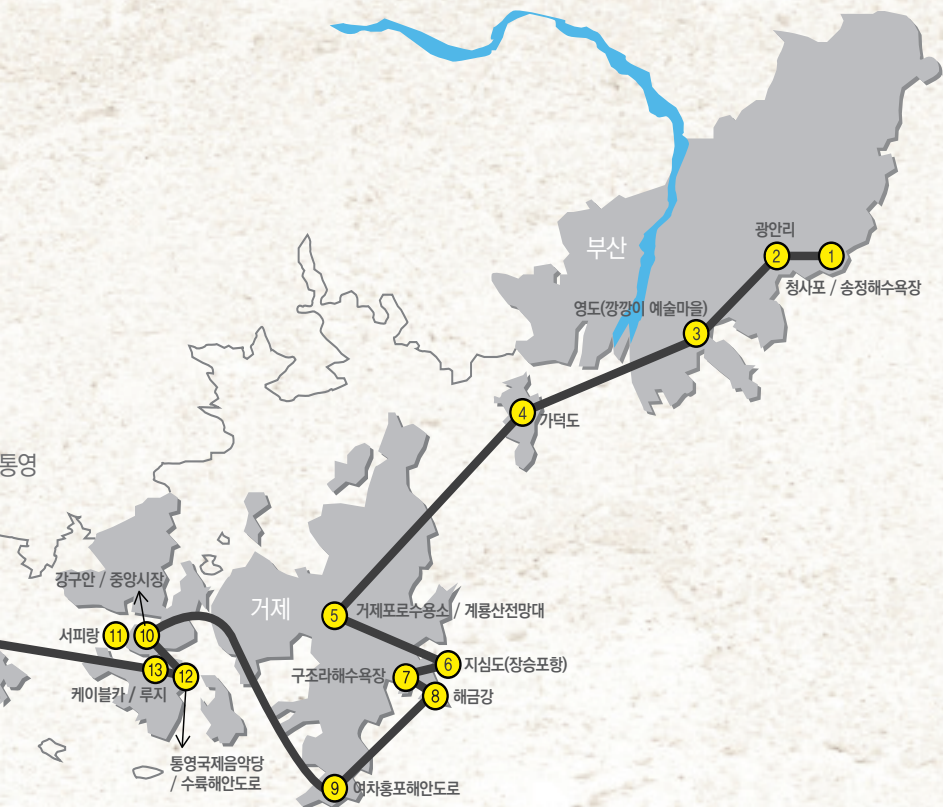
남쪽빛 감성여행은 부산, 거제, 통영, 남해의 매력적인 풍경과 그곳에서의 문화와 삶의 흔적을 통해 잊었던 감성을 깨우는 여행이다.

밀려오는 파도소리는 음악이 되고, 시가 되고 뜻 모를 그리움이 된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바다를 찾습니다. 넓고 깊게 펼쳐진 바다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다른 출발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잊고 있던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쪽빛 바다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밀려오는 파도소리는 음악이 되고, 시가 되고, 그림이 되며, 수많은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슴으로 밀려와 찢어냈던 일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쓸어내는 파도의 노래를 듣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바다는 즐거운 재잘거림이고, 슬픈 마음에 찾은 바다는 가만히 어깨를 다독입니다. 그리움이 묻어 있는 마음에게 바다는 밀물과 썰물을 끝없는 조우를 깨닫게 합니다. 이렇듯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바다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남쪽빛 감성여행 권역은 감성을 자극하는 쪽빛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청사포, 송정, 광안리, 해운대 등의 해수욕장은 물론 멋진 도시를 품고 있는 부산과 해금강, 장승포항, 구조라 해수욕장, 옥지와 연결되는 아름다운 다리를 품고 있는 거제, 남해의 아름다운 항구인 강구안과 수많은 섬을 품고 있는 통영,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미조항과 이국적인 풍경을 불러일으키는 마을이 있는 남해까지 모두 쪽빛 바다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감성은 내려놓고 이성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쪽빛 바다를 보며 숨
어있던 감성을 꺼내 놓는 순간, 새로운 나를 발
견하게 됩니다. 남쪽빛 감성여행은 나도 모르던
나를 만나는 여행입니다.

[파도의 말-이해인]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울어줄게
마음 놓고 울어줄게

푸르게 푸르게
내가 대신 노래해줄게

오랜 나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받은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일상이 메마르고
무디어질 땐
새로움의 포말로
무작정 달려올게



부산했던 마음이 바다를 보며 평온해진다

1996년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는 회를 거듭하며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02년 부산에서는 FIFA 월드컵이 개최되고 9월에는 제14회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세계 정상들이 부산에 모여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이지만, 이렇게 거창한 대외적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여행지로서의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듯 합니다.

부산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은 멋진 바다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송정 해수욕장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 트럭을 개조한 로드 카페들이 해안 도로에 줄지어 있어 로맨틱한 풍경을 이룹니다.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따라 송정 방향으로 가다 보면 만나는 청사포는 일출이 아름다워 전국적인 일출 명소로 유명합니다. 밤이 되면 형형색색 바뀌는 조명이 감성을 자극하는 광안대교도 빼놓을 수 없는 부산의 볼거리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광안리에서 펼쳐지는 세계불꽃축제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웅장하고 장엄한 불꽃쇼를 즐기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듭니다. 푸른 바다에 둘러싸여 하얗게 빛나는 두 개의 등대가 이국적인 가덕도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산업의 발상지인 영도의 갯강이 마을은 부산의 문화예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도시라는 수식어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부산의 전부였다면 이번에는 멋진 바다와 문화가 숨 쉬는 부산의 숨은 매력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조금은 부산하고 심란한 마음들은 뒤로하고 지금 부산으로 떠나 봅시다. 남쪽빛 바다와 마주서면 일상에 밀려나 있던 감성이 우리의 마음 한 가득 차오름을 느낍니다.



더베이101



청사포/송정해수욕장

페션이 된 미포철길을 따라 송정까지 걷다 보면 청사포라는 보석을 만난다. 미포철길 개방과 스카이워크인 다릿돌 전망대가 생기면서 여행객이 모이고 있다. 다릿돌은 청사포 해녀들의 바다밭이다. 조개구이로도 유명한 청사포는 별건 연탄 위에 석쇠를 놓고 미어 터지듯 조개를 올린다. 이것이 산지 청사포의 인심이다. 바다풍경을 보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다면 송정으로 달려가자. 국내 서퍼들 사이에서는 서핑의 성지로 알려졌다. 서핑이 처음이라도 잔잔한 송정 파도라면 서퍼가 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청사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62(송정 해수욕장)



광안리

광안리 해수욕장은 2002년 광안대교 개통으로 전기를 맞이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천루와 어우러진 현대적인 풍광은 많은 광고와 영화의 배경이 되었으며 할리우드의 영화 <블랙팬서>가 광안대교에서 촬영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매년 10월 광안대교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초장집'에서 양념과 야채를 구입해서 수변공원으로 가자. 광안대교와 바닷바람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소풍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 051-610-4841





영도(강강이 예술마을)

해방 이후 주춤했던 부산의 조선업은 1973년 대평동에 조선중공업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철선은 표면에 녹이 생겨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쟁으로 가장이 된 여성이 맡았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 온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선박에 매달려 작은 손망치로 배 표면을 두들기면 강강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강강이 아지매'라고 불렀다. 조선소의 강강대는 망치소리가 가득했던 강강이 마을은 예술가들의 마을로 변모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매일 오후 두시에 다리 상판이 올라가는 영도대교, 흰여울 문화마을까지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여행지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4(동삼동)



가덕도

가덕도는 부산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가덕도에서 가장 큰 대항마을에선 어촌 체험을 할 수 있고 놀차도는 알록달록 벽화 마을로 꾸며져 있다. 가덕도 정상인 연대봉 위에 서면 거제도도로 이어진 해저터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무렵인 1904년에 일제의 군사기지로 활용된 역사의 섬이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같은 해에 세워진 가덕도 등대는 지금도 불을 밝힌다. 2010년 가덕대교가 생기면서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1237



바다보다 넓은
것이 있다
그것이 하늘이다
하늘보다 넓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섬에 머문다는 건 그만큼 감성과 가까워진다는 것

거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직접 방문해 보시면 예상 밖의 큰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보로 섬을 다 돌아볼 생각이라면 더욱 힘든 여정이 되겠지요.

구조라 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물속이 들여다보일 만큼 깨끗한 바다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다라기보다 오히려 호수처럼 고즈넉한 느낌이 들어 쪽빛 감성에 물들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늘에서 바라 본 섬의 모양이 마음 심(心) 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지심도는 수령이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어 동백섬이라 불립니다. 바다 위의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은 십자동굴을 비롯하여, 사자바위, 부처바위, 촛대바위 등 자연이 깎아 놓은 기이한 암석들이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여차마을에서 홍포마을까지 해안절벽을 깎아 만든 3.5km 구간의 비포장도로인 여차 홍포 해안도로에서는 섬들을 감상하며 드라이브하기에 제격입니다. 로맨틱한 풍경으로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되는 곳입니다. 또한 거제는 섬이 가진 아름다움 속에 한국전쟁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전쟁의 아픈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제 포로수용소와 계룡산 전망대의 정상에서는 충무, 가덕도, 태종대가 한눈에 보이고 맑은 날에는 일본 대마도까지 지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차를 타고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섬의 정취와 아름다움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곳, 거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섬에 가는가?”라는 물음에 거제는 부족함 없는 답이 될 것입니다.



환상의 섬, 외도 보타니아(비너스가든)

거제포로수용소/계룡산전망대

한국전쟁의 처참한 흔적을 탐방하는 여행지다. 약 17만 3천 명의 전쟁포로를 수용했던 곳으로 당시 수용소의 모습과 포로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과 사진을 가상현실(VR)로 전시하고 있다. 거제 포로수용소는 포로들에게 일체의 공급품을 지급하며 국제적십자사에 의해 관리되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포로수용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며 1949년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는 제네바 제3협약의 첫 적용사례로 근대와 현대 포로수용소의 기준점이 되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는 계룡산 정상으로 가는 국내 최장 길이의 거제관광 모노레일이 있다. 정상에 오르면 거제 시가지와 남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61(고현동)

☎ 055-639-0625(포로수용소), 055-639-0650(계룡산전망대)





지심도(장승포항)

마음 심(心)자를 닮았다 해서 지심도다.
 봄이면 도처에서 볼그레한 동백꽃이 특
 특 지는 모습에 심장이 밀척 내려앉는다.
 꽃길을 걷다 만난 바다에서는 떠나온 장
 승포항이 멀지 않다. 파도가 깎은 바위에
 올라 지심도를 즐겨보자.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 055-639-4178

구조라해수욕장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구조라 해수욕장은 한적하고 파도도 잔잔해 아이들과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해금강 유람선이나 외도행 유람선이 출발하는 터미널도 있다. 바다를 색다르게 조망하고 싶다면 셋바람 소리길을 따라 걸어보자.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056

☎ 055-639-4244



해금강

수려한 경치가 금강산을 닮아 '바다위의 금강산'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해금강에서는 유람선을 타면 원초적인 물빛과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기암절벽, 상상력을 자극하는 바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하이лай트는 십자 동굴로, 좁은 해식동굴 안으로 배가 진입하면 명확한 십자형 하늘이 보인다. 해금강 유람선은 이국적인 섬, 외도 보타니아와 연계해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처럼 아름다운 바람의 언덕과 독특한 바위 풍경인 신선대도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





여차홍포해안도로

국토교통부가 뽑은 거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여차 몽돌해변에서 홍포마을까지 이어진 구간은 섬 없이 이어진 절경에 시속 1km로 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망산 자락을 끼고 해안을 달리다 보면 병대도와 가왕도, 매물도 6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일몰이 되면 중력마저 무시한 채 천상으로 향하는 기분이다. 어느 곳에 차를 세워도 신선놀음이 가능하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38-145(여차-홍포전망대)



박경리, 유치환, 김춘수에게 문학적 감성이 된 쪽빛바다



욕지도

통영은 예술가들의 고향입니다. 대하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의 고향이자 유치환, 김춘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 소설가, 유명 작가들의 흔적과 영감이 깃든 곳이 바로 통영입니다. 시는 마음이며,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인의 마음을 훑쳐 보는 것이라는 말을 설명하기라도 하듯, 꽃의 시인 김춘수 님은 “통영, 내 고향, 앞바다 한려수도로 트인 그 바다는 내 시의 뉘앙스가 되고 있으며, 그 뉘앙스는 내 시가 어떻게 변해왔든 그 바닥에 깔린 표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영바다는 어쩌면 수많은 작가들의 영감이 된 마음과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 바다를 훑쳐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강구안은 바다가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항구로 상쾌한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항구에는 충무김밥을 파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강구안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동피랑 벽화마을은 예쁜 외관 덕분에 SNS 성지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높은 벼랑”이란 뜻의 서피랑은 작가 박경리가 태어난 곳이자,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수륙 해안도로는 도보 산책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바다와 맞닿은 통영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며,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이곳 통영에 세워진 통영 국제음악당에서는 가을이면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가 열립니다. 통영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로 미륵산에서 운영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와 세계 6곳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스카이 라인 루지가 있습니다. 한번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를 타보는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통영은 수많은 작가들의 영감이 되고 표정이 된 쪽빛 바다를 보며, 작가의 숨결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말처럼 통영에서는 당신도 시인이 될지 모릅니다.

강구안/중앙시장

통영 바다가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 소박하고 잔잔한 항구를 만든다. 노변에는 통영 꿀빵과 충무김밥집들이 줄지어 있다. 줄어든 어선만큼 침체됐던 골목은 도시재생을 위한 <강구안 골목 프로젝트>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항구가 가진 삶의 정서를 풀어놓은 중앙시장은 펄떡이는 활력이 가득하다. 아지매들의 투박하고 정겨운 사투리 사이로 정이 오간다.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 ☎ 055-645-3805





서피랑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영 건물인 세병관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가파른 언덕을 동쪽은 동피랑, 서쪽은 서피랑이라 불렀다. 2013년 서피랑이 채색을 시작하며 마을은 빛을 되찾았다. 서피랑 정상 서포루까지 이어진 99계단은 개성 있는 그림과 익살스런 조형물로 꾸며지고 문화예술가들의 공작소와 카페로 풍성해졌다. 서포루에서는 통영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통영국제음악당/수륙해안도로

비상하는 갈매기 형태로 지어진 음악당은 1,300명 수용 가능한 대규모 연주회장이다. 2000년 통영문화재단과 국제 윤이상 협회가 시작한 '통영현대음악제'는 '통영국제음악제'로 이름을 바꿔 세계적인 음악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연의 여운을 깊이 되새기고 싶다면 음악당 뒤로 이어진 수륙해안도로를 걸어보자. 해안 산책로는 자전거와 도보로만 이용할 수 있어 한적하고 여유롭다.

경상남도 통영시 큰밭개1길 38(통영국제음악당) ☎ 055-650-0400

케이블카/루지

수려한 경관을 관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미륵산 8부 능선까지 15분만에 도착하니, 한려수도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자동순환방식의 케이블카라 대기가 많아도 금세 탑승할 수 있다. 경사진 트랙을 따라 무동력 카트를 타고 달리는 루지는 1.5km의 트랙에 360도 회전코스가 있어 흥미 진진하다. 야간 비행하듯 오색의 조명 위로 루지를 타고 달릴 수도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205(통영 케이블카) ☎ 1544-3303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178(루지) ☎ 070-4731-8473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_ 영국속담



사랑도

사랑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다. 윗섬과 아랫섬이 다정하게 누워있다. 두 섬 사이의 1.5km 바다 위에는 사랑대교를 놓았다. 윗섬 옆에 붙은 수우도까지 하면 유인도 3개가 모두 사랑도다. 육지에서 출발한 여행객이 45분이면 상도선착장에 여행객을 내려놓는다. 대부분 등산객과 낚시꾼이다. 등산객은 하루에 7번 운행하는 일주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먼저 달린다.

가장 인기 있는 등산 코스는 돈지항에서 시작해 옥녀봉까지다. 돈지항에서 처음 만나는 지리망산은 육지의 명산, '지리산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리망산에서 볼모산, 가마봉과 옥녀봉까지의 산행코스가 지리산 못지않게 험준해 묘미가 있다. 땀줄을 타고 올라야하는 기암절벽부터 아찔한 구름다리, 거대한 암굴과 울창한 숲길을 지나면 마지막 코스인 옥녀봉에 도착한다.

사랑도는 바다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사랑중학교 앞 추억의 엔젤호다. 통영을 기점으로 부산, 거제, 사랑, 삼천포, 남해, 여수를 운행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쾌속여객선이다. 낚시꾼은 아랫섬으로 모인다. 낚시가 처음인 여행객도 문제없다. 어촌체험프로그램이 있어 후릿그물낚시나 바다낚시, 조개잡이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진촌2길 일대](#)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_도종환



부산 광안대교



쪽빛바다와 함께하는 이국적인 정취,
감성을 자극하기에
이 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남해 보리암

남해는 온화한 기후와 맑고 깨끗한 쪽빛 바다, 빼어난 경치 등 훌륭한 천연의 관광 자원을 갖춘 곳입니다.

울창한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금산은 남해안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장관을 이룹니다. 금산의 동북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주해수욕장은 모래가 곱고 수온이 높아 해수욕하기에 적당한 조건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뒤로는 넓고 큰 방풍림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미륵이 도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미조항은 남해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로 남향과 북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구에 늘어선 횃집들에서는 아름다운 미조항을 바라보며 갈치회, 멸치회 등의 특별한 먹거리를 즐기기 좋습니다. 남해의 쪽빛 바다와 은빛 모래, 그 뒤로 펼쳐진 소나무 숲이 잘 어우러진 송정 솔바람해변은 보는 순간 가슴을 설레게 하여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산 보리암은 팔공산 깃바위, 낙산사 흥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기도처로 불리는 암자로, 좌정하고 있는 향나무 관세음 보살상과 좌우로 있는 남순동자, 해상용왕이 무척 인상적인 곳입니다. 1960년대 간호사, 광부 등으로 독일에 파견됐던 교포들이 고향에 돌아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독일마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직접 들어온 건축 자재로 독일식 주택을 짓고, 독일에서의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곳에는 독일을 알리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쪽빛 남쪽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그곳에서 바라본 독일마을의 이국적인 정취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태리의 아름다운 미항인 나폴리와 견주어지는 미조항과 독일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독일마을에서 남해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해는 또한 노량해전에서 왜구들을 무찌르다 적의 총탄에 맞아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공로와 충의가 담긴 역사의 현장이며, 국난극복의 역사가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 거기에 감성을 자극하는 남해의 쪽빛 바다까지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남해입니다.

금산보리암

원효대사가 보광사라는 절을 세워 보광산이라 불렀다. 고려 후기 이성계가 조선왕조 개국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산 전체를 비단으로 덮겠다고 하여 개국 후 비단 금錦자를 써서 금산이라 불렀다. 설화 때문인지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와 함께 기도발이 좋기로 소문난 우리나라 3대 기도도량이 되었다. 바다를 바라보는 사찰에 관음보살이 있어 해수관을 성지로 불린다. 수행하듯 오른 천길 벼랑 끝에 위풍당당하게 서있는 보리암에 서면 앵강만과 다랑논의 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115





남해독일마을/원예예술촌

바닷가 언덕에 40여 채의 독일 건축물을 재현한 주택들이 들어서며 이국적인 풍경의 마을이 조성됐다.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이다. 우리나라보다 독일에서 산 세월이 더 길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방인 같았던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마을이다. 주거환경뿐 아니라 음식과 문화까지 크리스마스에 먹는 슈틀레이나 수제 소시지, 맥주 등 독일의 문화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마을에 마련된 파독전시관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직접 만든 전시관으로 파독부터 현대까지 역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92(독일마을) ☎ 055-860-354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39(원예예술촌) ☎ 055-867-4702



송정솔바람해변

소나무 숲을 지나자 고운 모래는 물고기의 은빛 비늘처럼 빛난다. 송정솔바람 해변의 풍경은 빛은 듯 단아하고 아름답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나타나는 단애(斷崖)지형은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암석으로 작은 바다생물들의 놀이터다. 야영장에는 40여 동의 텐트가 들어가고 샤워실과 화장실, 전기사용이 가능하다.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83번길
4-69 ☎ 055-867-3414



남해 가천가다랭이마을

가천다랭이마을

쪽빛 바다를 향한 계단식 논으로 독특한 풍경의 마을은 CNN선정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힌다. 마을 양옆으로 흐르는 냇물과 좁고 가파른 계단식 논인 다랭이가 유명해 가천다랭이마을로 알려졌다. 가파른 경사면에 최대한의 농경지를 얻기 위해 산비탈을 다듬고 자투리땅도 일궈야 했던 마을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녹아있다. 팥과 남해에서 얻은 양식은 오늘도 한 상 그득하게 차려낸다.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남면로 679번길 21 ☎ 055-863-3427

미조항

'미륵이 도운 마을'이라는 지명답게 황금어장을 지닌 미조항에서는 그물을 드리우고 바다가 주는 대로 걷어간다. 매년 5월 멸치철에는 바다축제가 열린다. 어부들이 땀 흘리며 멸치를 털다 보면 바다는 은빛 비늘이 뒤덮인다. 싱싱한 멸치회도 맛볼 수 있다. 갈갈한 찌개에 해풍 맞은 씹으로 싸먹는 한 끼가 바로 입안의 축제다.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 1588-3415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붓는
한 방울의 물보다도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_ 마더 테레사

추억감성

부산 초량동 근대건축물 투어 부산 보수동 책방거리 부산 국제시장 먹거리 부산 가덕도 외양포 마을 거제 포로수용유적공원 거제 자심도

통영 충무김밥/꿀방 통영 해저터널 통영 세병관 통영 이순신공원 통영 중앙전통시장 거제 산방산비원

통영 달아공원 남해 지족어촌체험마을 남해 다랭이마을 남해 송정솔바람해변 남해 양떼목장 남해 이순신순국공원

액티비티감성

부산 송정해수욕장 서핑 부산 더베이101 요트 거제 계룡산 산악바이크 거제 구조라해수욕장 카약 통영 해안누리길 자전거

통영 통영항 요트세일링 통영 사랑도 낚시/등산 통영 루지

예술감성

남해 바래길작은미술관 남해 B급 상점 남해 돌장 프리마켓 통영 서퍼랑 통영 박경리 기념관 통영 전혁림 미술관

부산 영화의 전당 부산 보수동 책방거리 부산 갯강이 예술마을 부산 김천문화마을 거제 매미성 통영 국제음악당

재충전감성

남해 보리암 일출 남해 미조항 남해 독일마을 남해 물건리방조어부림 부산 근대건축물 투어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 부산 청사포 폐선부지 부산 송정해수욕장 부산 F1963

자연감성

부산 오륙도 스카이워크 부산 광안리 야간요트투어 거제 구조라항, 명품섬 거제 셋바람소리길 거제 바람의 언덕, 신선대 거제 해금강 유람선

통영 달포성지 통영 박경리 기념관 통영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통영 달아공원 일몰 거제 여차총포 해안도로

감성의 바다에 풍덩~ 쫄빔 축제의 낭만을 만나자

부산 불꽃축제

매년 가을밤 광안리해수욕장의 하늘과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 부산불꽃축제는 부산시민만의 축제가 아닌 국내 타 지역 및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불꽃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해상쇼'라는 취지대로 매년 다양한 불꽃뿐만 아니라 화려한 레이저 쇼 등을 테마에 맞는 음악과 함께 선보이며, 특이한 모양의 불꽃뿐만 아니라 초대형 불꽃도 선보이는 축제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백사장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하지만, 동백섬, 이기대, 황령산에서도 불꽃쇼를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 광안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동백섬, 이기대 앞까지 "3포인트" 불꽃이 연출 되어 전국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시기. 10월



거제 바다로 세계로

바다의 푸른 젊음과 낭만이 있는 축제,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는 남해안 최대 해양스포츠 축제다. 아이돌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행사 및 해양스포츠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다. 2019년도에는 바다야(夜)놀자!를 메인 컨셉으로 하여 무더운 여름,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거제의 여름 해변에서 시원하고 낭만 가득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시기. 8월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통영 한산대첩축제

통영 한산대첩축제

세계 4대 해전 중 가장 위대한 해전이었던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성웅 이충무공의 구국정신을 기리고,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통영한산대첩축제는 1962년 5월 1일 한산대첩기념제전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고장 경남 통영시 한산면에서 해마다 열리는 문화제이다. 이순신 장군과 바다가 함께하는 축제답게 수군체험 노젓기대회나 카누 노젓기대회 등 해양과 밀접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시기. 8월 T. 055-644-5222



남해 보물섬미조항렬치축제

남해 보물섬미조항렬치축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해군 미조항 열치축제에서는 갯 잡은 싱싱한 미조 은멸치로 만든 여러 요리와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또한 하루 두 차례의 멸치털이 시연에서는 어부들의 건강한 삶의 에너지와 봄멸치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과 사진작가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멸치 즉석 경매, 멸치젓갈 담기 등 평소 해보기 어려웠던 경험도 할 수 있다. 바다에 인접한 무대에서는 축제기간 내내 멸치가요제, '우리가락 좋은 시고', 공군의장 군악대 선상라이브 등 공연이 펼쳐진다. 낭만과 즐거움, 맛이 함께하는 축제가 미조항에서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기. 5월 T. 055-860-8601

바다가 키우고 갯바람이 어루만지는 미각의 향연

부산-미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채취되는 미역으로 봄가을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조류도 바닷물이 위 아래로 뒤섞여 부유 유기물이 풍부하다. 타 지역 미역에 비해 쫄깃한 맛과 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제-유자

온난한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 알이 크고 향기가 좋다. 칼슘, 칼륨 등의 무기질 함유량이 많아 위장 기능 강화와 해독작용에 효능이 있고 피로회복, 감기에방, 숙취해소에 도움을 준다.



통영-굴

굴은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칼슘 함량이 많아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며, 철, 아연, 구리, 망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다. 통영 지역에서는 특히 국내 굴 생산량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남해-멸치

부채 모양으로 참나무 말뚝을 박아 죽방렴(竹防簾)을 설치해 멸치를 잡는다. 멸치에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남해에서는 멸치회와 멸치쌈밥 등이 유명하다.



숙박 안내

부산

선셋호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46	051-730-9900	sunsethotel.co.kr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8번길 49	051-741-5009	haeundaehotel.kr	
아르반 호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길 32	051-805-9901	www.arbanhotel.com	
베니키아프리미어 호텔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17	051-760-7000	www.benikea.com	
베니키아프리미어 마리안느 호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310	051-606-0600	www.benikea.com	

거제

소낭구펜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마전1길 83	055-682-2141	www.sonanggoo.com	
옛마실펜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마전1길 65	055-682-2141	www.sonanggoo.com	

통영

한산마리나 호텔&리조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청이해안길 820	055-648-3332	www.hansanmarina.co.kr/
베니키아 센트럴 호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2로 49-20	055-643-7001	www.benikea.com/



남해

남해비치호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75-13	055-862-8880	www.리조트.com
--------	----------------------------	--------------	-------------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란?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사업 범위 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곳

*상기 숙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Best Night in Korea
베 니 키 아

베니키아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인브랜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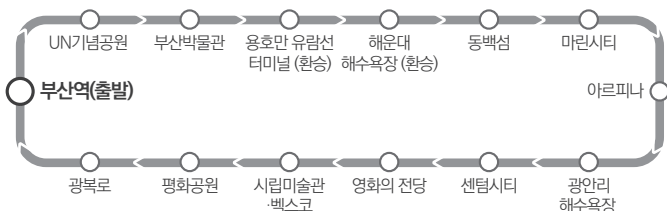
*상기 숙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 안내

부산 시티투어버스

레드라인

(부산역 - 해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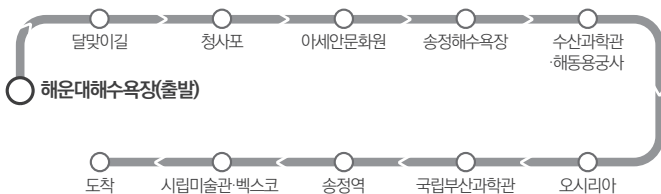
그린라인

(옹호만 - 오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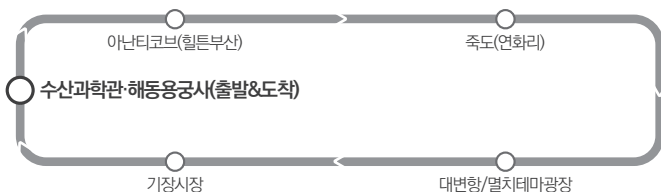
블루라인

(해운대 - 용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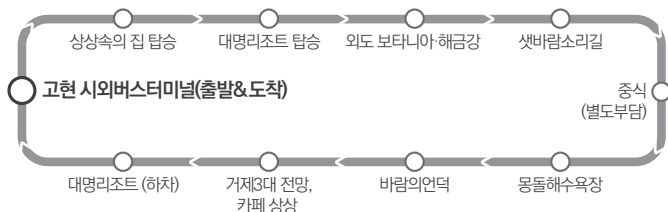
옐로라인

(용궁사 - 기장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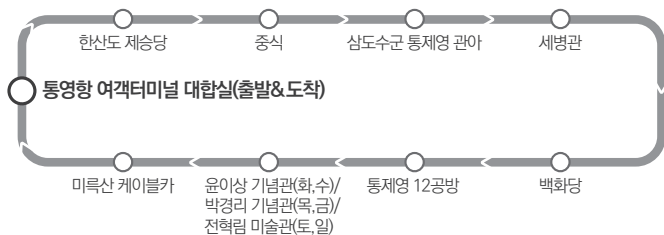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관광안내소 및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시티투어버스



통영 시티투어버스



*진행 코스 및 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26464)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TEL.033-738-3000

바다에서는 누구나 감성에 젖어
이 순간 나의 감정을 그리게 된다.
마치 한 명의 시인처럼.